전호근 <장자, 그 신랄한 패러디의 세계>

3강 장자의 소요와 만물평등

◆ 1교시 소요유(逍遙遊) ③

▲ 『장자』 - 자유와 의존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도 『장자』를 통해서 아까 뭐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이러셨는데 『장자』 안 읽으셔도 될 거 같은 느낌도 들고. 여기 보면 원래 『장자』 「소요유」 얘기할 때는 자유를 이야기하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거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기 마련인데, 그 무엇이 바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장자』에는 바람 타고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소요유」 말미에 나옵니다. 열자가 바로 어풍이행(御風而行)이라고 해서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자가 추구하는 거는 그 바람조차도 의존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장자가 꿈꾸는 것인데 그게 때로는 사회적 질곡이 되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나가서 쓸모 있는 일을 하라는, 요새 우리가 받는 것과 아주 비슷하죠.** 쓸모 있는 존재가 되라는 그런 억압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꼭 쓸모 있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쓸모없지만 그 쓸모 있음의 목적이 되는 것들이 가득한데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장자』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옛날식의 『장자』 독법은 대체로 저런 게 많았거든요. 『장자』를 가지고 직접 장자의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장자가 던지는 이를 테면 무위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현실도피적인 방법으로 이해한 나머지 『장자』를 통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또 잠깐의 소요. 이를테면 잠깐의 정신적인 안일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독법이 많았죠. 그런데 그런 독법도 괜찮은 독법인 거 같긴 해요.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반드시 그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세상을 생각하고 올바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긴 하니까요. 그런데 『장자』를 읽으면서 늘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장자』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www.artnstudy.com

▲ 매미와 새끼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 만물 평등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소요유」를 보면서 거대한 붕새의 비상을 보았죠. 물속에서 놀던 물고기가 새로 변해서 구만 리 장천을 날아올라 간 다음에 수십만 리 남쪽으로 날아가는 그 장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른바 매미와 어린 새끼 새, 조여학구(蜩與學鳩)라고 나왔죠. 그런 새끼 새들이 대붕의 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대붕의 비상을 보고 비웃는 대목이 나왔죠. 조여학구(蜩與學鳩) 소지왈(笑之曰)해서 저놈이 도대체 뭐 하러 구만 리 남쪽을 날아가는가, 이런 식으로 비웃는 대목이 나왔는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대체로 우리 자신을 대붕에 견주고 나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무리들을 조여학구에 견주어서 스스로 자기도취에 빠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큐식의 자기 승리법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죠. 매미와 새끼 새, 어린 새의 입장에서 작은 새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생각해본 사람들이 18세기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서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덕무(李德懋) 같은 학자들요. 이덕무는 워낙 뛰어난 문장가니까 박지원(朴趾源)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덕무라는 이름만으로 홀로 설 수 있죠. 어쨌든 박지원이 이덕무를 알아줬죠. 박지원이니 박제가(朴齊家)니 이서구(李書九)니 하여튼 더 이상 문장이 뛰어나다고 칭찬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학자들, 문인들 그룹 속에 이덕무가 있죠.
그리고 역시 박지원도 마찬가집니다. 박지원 같은 경우도 박지원의 친구 중에 자패(子佩)라고 있는데 **『낭환집(蜋丸集)』**이라고 있어요. 낭환이 새똥구리 또는 말똥구리를 **랑(蜋)**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붕이 있고 대붕을 이해하지 못하는 매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장자 스타일이라면 이덕무의 「선귤당농서」에 보면 역시 낭환 이야기가 나오고 박지원의 『낭환집』 서문에 보면 역시 낭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용이 있고 그리고 용에게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낭이 있다. 용은 아주 신령스러운 동물이고 조화를 부리는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어쨌든 아주 위대한 존잽니다. 그리고 낭이라고 하는 건 쇠똥구리나 굴리는 아주 하찮은 존재죠. 그런데 용은 여의주를 갖고 있고 여의주는 뜻대로 하는 구슬이다, 보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낭은 낭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의주는 보배롭고 훌륭하고 낭환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낭이, 쇠똥구리가 자기의 낭환을 보물로 여기면서 용이 가진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용 또한 자신의 여의주를 과시하면서 이 낭환을 무시해선 안 된다. 이게 이덕무와 박지원의 이야깁니다. 그 속에 수많은 유모어가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런 의밉니다.
사실 결론만 이야기한다는 게 무책임한데 문학가의 문장 속에서 표현을 빼놓고 결론만 이야

www.artnstudy.com

기하면 참 그렇죠. 좀 있다 장자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집니다. 수많은 구멍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수많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소리도 너무나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모양의 구멍이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만 이야기하면 참 썰렁하겠죠.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고 우리가 『장자』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붕이 되거나 일방적으로 거창한 이념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매미나 또는 학구(學鳩), 날개짓을 막 배우는 어린 새의 입장이 되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저런 문학가들의 활동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테면 이따가 소개를 하겠지만 장자가 대자연의 노래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을 했다면 박지원은 시골 사람이 코고는 소리를 역시 음악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음악 소리는 굉장히 거창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줄 알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코고는 소리는 굉장히 괴롭잖아요. 괴롭게 여기는데 역시 연암이 다른 게 저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어젯밤에 자네 때문에 잠 못 잤어. 그러고 말았을 텐데 박지원은 그 코고는 소리를 어떤 때는 물이 끌어 오르는 듯하고 어떤 때는 한숨쉬는 듯하고 어떤 때는 장작불을 때는 듯하고 따닥따닥, 별소리가 다 나요. 역시 박지원도 잠을 못 자긴 못 잤나 봐요. 어쨌든 잠을 못 잔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고 아닌 사람은 저처럼 그 사람 참 코 대개 시끄럽게 고네, 뭐 이 정도로 나오지요. 그것도 이따 같이 소개를 하고요 「소요유」 말미에 제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사실 「제물론」입니다.

제물론(齊物論)은 가지런한 만물의 이야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 놓았죠. 제물(齊物)은 만물이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유용(有用), 무용(無用), 이런 식으로 나눠서 위계를 만들잖아요. 유용한 것이 상위에 있고, 무용한 것은 하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에서는 그런 것들을 대등하게 동등한 것으로 다룹니다. 「소요유」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역전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용이 오히려 큰 것으로, 대이무용(大而無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실마리가 「소요유」 말미에 있기 때문에 **만물평등**, 「제물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齊)는 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물(物)은 물 물, 모든 사물, 모든 존재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물이 다 평등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물론 다른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제물은 만물이 다 평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소요유」 말미에는 때로는 무용한 것이 오히려 유용한 것보다 더 큰 함축을 가지는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에 우열이 있는 거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장자가 명쾌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길 바라겠지만 장자는 그런 식의 대화에는 잘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견해도 제시합니다. 그게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의도를 읽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게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장자』 따라서 읽다 보면 장자의 의도는 저절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www.artnstudy.com

▲ 소지와 대지, 소년과 대년

우선 「소요유」 말미에 보면요,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장자』에 나오는 나무하면 일단은 대춘(大椿)이란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樗)라고 하는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혜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수(大樹), 큰 나무, 이런 식으로 큰 나무. 이거는 이제 고유의 품종을 지시하지 않고 그냥 커다란 나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외편, 잡편에 가면, 이건 전부 내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외편이니 잡편이니 가면 또 다른 커다란 존재들이 나옵니다.

내편엔 **장오자(長梧子)**라고 하는 가공의 인물이 나오는데 장오자는 오동나무 오(梧) 자죠. 커다란 오동나무를 인격화시켜서 장오자라고 한 겁니다. 커다란 오동나무처럼 득도한 사람, 깨달은 사람. 깨달을 오(悟) 자와 발음이 같죠. 그래서 **커다란 나무를 깨달은 존재**로 표현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존재들이 큰 지혜를 갖고 있다. 대지(大知)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소지(小知)와 대지(大知)**를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소년(小年)과 대년(大年)을 대비시켜서 얘길 합니다. **소년은 짧게 사는 것들이고 대년은 아주 길게, 크게 오래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두 개를 대비시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여러 군데 나누어져서 나오는데 지난번에 드린 자료 중에서 2페이지 맨 아랫단에 보면 이제 번역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작은 앎은 큰 앎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삶은 긴 삶에 미치지 못하지. 그런데 그거는 작은 앎은 소지(小知)고 큰 앎은 대지(大知)입니다. 그러니까 소지불급대지(小知不及大知), 소지가 대지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소년불급대년(小年不及大年), 짧게 사는 것들은 길게 사는 것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예시가 나오죠. **조균(朝菌)**은 부지회삭(不知晦朔)이요. 조균은 아침나절 잠깐, 조(朝) 자는 아침 조 자죠, 아침나절 잠깐 자라났다가 사라져버리는 버섯, 그게 조균. 실제 이런 버섯이 있습니다. 아침에 습기가 많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자라났다가 햇빛을 받으면 바로 포자를 날리면서 죽어버리는, 번식을 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버섯이 있어요. 그러면서 장자가 하는 얘기가 조균은 부지회삭이요. 조균은 회삭을 알지 못한다. 부지회삭할 때 회(晦)는 그믐 회 자고요, 삭(朔)은 초하루 삭 잡니다. 그러니까 그믐과 초하루를 알지 못한다. 한 달의 길이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침나절 잠깐 순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한 달의 길이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혜고(蟪蛄)**는 부지춘추(不知春秋)라. 혜(蟪)는 이제 매미 종륩니다. 고(蛄)도 매미 종류에요. 편의상 혜는 쓰르라미, 고는 신시매미. 쓰르라미나 신시 매미는 춘추를 알지 못한다. 춘추는 봄과 가을인데 일 년을 나타내는 말로 자주 쓰이

www.artnstudy.com

죠. 춘하추동이 일 년인데 그 중에서 봄과 가을만 따서 춘추라고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추(秋) 자 한 자만 갖고도 일 년이라는 뜻으로 쓰죠. 천추지한(千秋之恨)하면 천 년이 가도 잊을 수 없는 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구요. 혜고부지춘추(蟪蛄不知春秋) 하면 한철 사는 매미는 일 년의 길이를 알지 못한다. 왜? 한철 살다 죽으니까. 물론 우리가 혜고, 이런 매미 같은 것들이 땅 속에서 굼벵이로 십 년, 적게는 육칠 년, 길게는 십이, 십삼 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장자가 얘기하는 짧은 시간 속에 어차피 조균이든 혜고가 십 년을 살든 이십 년을 살든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짧게 사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소년(小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년(大年) 이야기를 해요. 대년 이야기를 하면서 초나라 남쪽에 거북이 있는데 그 거북이는 **명령(冥靈)**이라는. 명령도 나무 이름이라는 주장도 있긴 해요. 일단은 이 명(冥) 자가 바다 명(溟) 자와 같기 때문에 거북이 이름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하고요, 령(靈) 자도 신령스럽다. 거북의 등딱지, 배딱지를 가지고 점을 치기 때문에 신령스러움이 깃들어 있다 보고 영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남쪽 바다에 사는 거북이를 명령이라고 했다.

명령이라는 거북이는 오백 년을 봄으로 삼고 또 오백 년을 가을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이 얼마를 사느냐 기준을 따져보면 춘하추동의 춘이 오백 년이고 추가 또 오백 년이면 이걸 사계절로 나누면 일 년이 이천 년이겠죠. 명령에게 일 년은 인간의 이천 년에 해당하는 것이 될 거고 인간의 수명을 『예기』 같은 데 보면 백 년이라고 그래요. 기(期). 누구나 다 백 년을 산다는 뜻은 아니고 인간 수명은 일단 기라고 하면 백년왈기(百年曰期)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수명은 일단 백 년을 기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수명을 백 년으로 잡으면 이거는 이제 이천 곱하기 백 하면 이십만 년 사는 거네요. 이십만 년 사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삽니다. 조균이나 혜고하곤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또 **대춘** 이야기를 합니다. 대춘은 상고 시대에 대춘이란 나무가 있었는데 이 대춘이란 존재는 팔천 년을 봄으로 삼고 또 팔천 년을 가을로 삼는다. 그러면 사팔이 삼십이 이렇게 되겠죠. 삼만 이천 년. 그걸 또 곱하기 백하면 삼백이십만 년 살겠네. 상당히 오래 살죠. 대춘이라는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년과 대년을 대비하면서 각각이 소지와 대지다. 그러면서 소지가 대지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커다란 존재와 하찮은 것들을 대비하면서 소년, 소지, 그리고 대년, 대지 속에서 대년과 대지. 커다란 지혜는 작은 존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장자에게 오래 사는 존재들이 있는데 인간들은 그저 **팽조**에요. 팽조에 관한 이야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2 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팔백 년 산 팽조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특별히 이야기하면서 그와 맞서려고 하니 슬픈 일이다. 팔백 년을 살면 그게 충분히 오래 사는 줄로 세상 사람들이 아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 팔백 년을 산다 해도 그건 아주 짧은 시간의 흐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장자의 이야기고 거기서 장자는 슬픔을 이야기 합니다. 이때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 속에서 즐거운 시

www.artnstudy.com

간에 대한, 짧은 시간에 대한 애틋함이 이런 데서 나타난 거죠. 그런 상황을 장자가 빗대어서 소지, 대지, 이런 것과 같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덧없는 삶을 노래한 고전 문학 작품들

그런 경우는 문학 작품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죠. **『고문진보(古文眞寶)』**라는 책이 있잖아요. 『고문진보』의 명문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노래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명문장가들 중에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인간 삶의 짧음을 이야기하는 게 이태백의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 같은 거요. 봄날 도화꽃이 만발한 동산에서 수십 명의 자기 아우들과 함께 모여서 시를 지으면서 시회를 열고 자기가 서문을 짓습니다. 그런 시회는 원래 서문을 지으면 문장을 제일 잘 짓는 사람이 서문을 짓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전부 시를 짓는 그런 형식인데 거기 보면 이태백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있죠.
그 대목을 보면 부천지자(夫天地者)는 만물지역려(萬物之逆旅)요, 이러면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요. 천지자는 만물지역려요. 만물이 잠깐 쉬어가는 여관이다. 역려(逆旅)할 때 려(旅)는 여행자를 의미합니다. 역(逆)은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천지라고 하는 하늘과 땅, 이 존재는 만물, 수많은 존재들이 쉬어가는 역려라. 여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광음자(光陰者)는 백대지과객(百代之過客)이라. 광음은 빛과 어둠이죠.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죠. 밤낮, 주야. 밤낮의 흐름, 빛과 어둠의 교체, 이 시간이라는 것은 백대지과객이라. 백대는 대를 일 세대 이렇게 하면 삼십 년이 되는데요. 세(世)라는 글자가 세 개 내린 걸 연결한 거죠. 삼십 년 하면 백하면 삼천 년. 하지만, 여기서 백대는 꼭 삼천 년이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대를 지나가는, 영원한 시간의 흐름을 잠깐 지나가는 과객이다. 그러니까 덧없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부생(浮生)이 약몽(若夢)하니 위환락하고인(爲歡樂何古人). 부생은 뜬 인생, 부질없는 인생이란 뜻입니다. **뿌리가 없는 근거가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뿌리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연명이 하는 것처럼 인생무근체(人生無根蔕)라. 부생은 인생을 의미하거든요. 도연명 식으로 얘기하면 인생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체가 없다. 이 뿌리나 화체, 꽃의 꼭지에요. 꼭지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잖아요. 꽃이나 열매의 고향은 꼭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없고, 인간이란 건요. 그리고 또 뿌리가 없다. 초목이면 뿌리가 있겠죠. 근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게 없다. 그래서 도연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급시당면려(及時當勉勵)하라. 도연명이 이야기하는 거는 인생무근체(人生無根蔕)하니 표여맥상진(飄如陌上塵)이라. 바람에 흩날리는 것이 마치 밭두둑의 먼지와 같다. 이리저리 흩날린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급시당면려(及時當勉勵)하라 세월부대인(歲月不待人)이라. **때맞추어서**

www.artnstudy.com

열심히 애쓰도록 하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물론 그걸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만 시구 속에 나오는 걸 자세히 음미해 보면 때맞추어 열심히 그 즐거움을 누리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도연명의 맥락에 맞을 겁니다.

이태백도 마찬가지에요. 이태백도 부생이 약몽하니. **뜬 인생, 부질없는 인생, 부평초처럼 왔다 갔다 떠다니는 인생이 마치 꿈과 같다. 그러니 위환기하(爲歡幾何)여. 즐거운 때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기하(幾何)는 얼마인가, 이런 뜻이에요.** 값이 얼마인가. 뭐 이런 뜻이에요. 수학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기하학(幾何學)이란 용어를 나중에 지오메트리(geometry)와 연결해서 나중에 쓴 겁니다. 그건 나중 근대의 이야기고 원래 기하는 얼마인가의 뜻으로 쓰입니다. 즐거웠던 적, 즐거웠던 시절이 얼마인가,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서 장황하게 「춘야연도리원서」가 쭉 가죠. 어쨌든 이태백이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즐거운 때를 붙잡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요. **삶의 기쁨, 삶의 환희, 그 짧은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쭉 글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애틋함, 슬픔,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까 제가 왕희지 난정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상곡수(流觴曲水) 얘기를 하면서요. 왕희지 난정서문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죠. 거기도 보면 후세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문장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환희나 즐거움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애틋한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마 장자가 얘기하는 슬픔이라는 것도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아주 짧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오래 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거죠. 팔백 년 살면 될 거 같지만 팔백 년 살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삶의 덧없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탕 임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붕의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교시 소요유(逍遙遊) ④

▲ 무하유지향(无何有之鄕) - 무목적성

다섯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전에 또 네 번째 이야기 있죠. 7 페이지에 네 번째 이야기 나오고 8 페이지에 가면 다섯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네 번째 이야기와 다섯 번째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는 「소요유」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www.artnstudy.com

하는데 네 번째 이야기는 장자의 맥락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나무를 이제 혜시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무 얘기가 아니죠. 혜시가 장자 보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죠. 위나라 왕이 나한테 큰 박씨를 주길래 대오지종(大瓠之種), 박씨를 주길래, 내가 그걸 심었더니만 오 석들이의 커다란 박이 열렸다. 그런데 그 박이 너무나 커서 뭘 담을 수도 없고 물을 넣으면 깨지고 그래서 쓸모가 없어서 깨버리고 말았다. 그게 참 악 소리 나게 크지 않은 건 아니지만 쓸모가 없더라. 자네의 말도 마찬가지다, 자네의 말도 대이무용(大而無用)이다. 크기만 하지 쓸모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네 번째 이야기죠.

그에 대한 장자의 답변은 장자의 다른 글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솜 빠는 일을 비방으로 가진, 솜 빠는 일을 하던 사람이 솜을 빨아서 생계를 영위하는데 물일을 하면서도 손 트지 않는 비방을 갖고 있었죠,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그런데 그 비방을 갖고 대대로 솜 빠는 일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객이,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유세하면서 돌아다니는 객이 찾아와서 그 비방을 자기에게 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안사람들을 다 모아 놓고 우리는 그 동안 대대로 솜 빨래를 해 와서 불과 몇 금에 지나지 않았는데, 작은 하찮은 돈을 버는데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객이 찾아와서 백금을 가지고 이 비방을 사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비방을 알려주자 그래서 알려줬는데 그 객이 결국 그 비방을 이용해 가지고 수전에, 오나라, 월나라 전쟁을 할 때 수전에 손 트지 않는 비방을 써서 병사들이 손 트지 않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결국 제후로 봉해졌다 이거에요. 열지이봉(裂地而封)이라고. 제후에게서 봉해짐, 그러니까 대부가 된 거겠죠. 어쨌든 영토를 할양받아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장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무용한 것을 유용한 것으로 바꾸어서 설명한 거죠. 어떤 사람은 무용한 것을 무용한 것 그대로 놔두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주 유용한 것으로 바꾸어 낸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용 자체에 대한 장자의 긍정적 입장이 거기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대로 드러나 있는 이야기는 다섯 번째 이야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를 먼저 보죠. 그건 제가 번역해 놓은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중학생 수준까지 한 번 낮추어서 한 번 해보려고 한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학생들이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한 번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죠.
혜시가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어.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죽나무라 하더군. 가죽나무라 하기도 하고 가중나무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거는 나물도 있어요. 가중나무의 어린 순을 무쳐서 먹는 게 가죽나물입니다. 춘엽채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가죽나무라 하더라. 그런데 이 나무가 커다란 줄기는 울퉁불퉁해서 먹줄에 맞춰 자를 수 없고 작은 가지는 구불구불해서 그림쇠(지름이나 선의 거리를 재는 기구. ≒규구(規矩))나 곱자에 맞질 않아. 그래서 길가에 서있는데도 목수들이 돌아보지도 않는다네. 지금 자네의 말도 이 나무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나무와 같아서 쓸모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듣지

www.artnstudy.com

않고 다 떠나버리는 게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네는 살쾡이를 본 적이 없나? 몸을 바짝 낮추고 업드려서 놀러 나온 짐승들을 엿보다가 아무데나 뛰어다니는데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피하지 않다가 결국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잡혀 죽고 말지. 그런데 저 검은 들소는 크기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지만 크기만 할 뿐 쥐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해. 지금 자네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게 쓸모없어 걱정이 된다면 어찌하여 무하유(无何有)의 고을 아득한 들판에 심어 놓고.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곁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 아래에서 한동안 거닐다가 잠깐 낮잠이나 자지 않는가. **도끼에 베여 일찍 죽을 염려도 없고 아무도 해칠 리가 없을 것이니 쓸모없다는 게 어찌 괴로운 일이기만 하겠는가.** 그 마지막 부분이요.
지금 자네에게 커다란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하부수지어무하유지향, 광막지야(何不樹之於无何有之鄉, 廣莫之野). **무하유(无何有)**의 고을이란 말이죠. 이 무하유의 고을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무하유의 고을에 광막지야(廣莫之野)가 있습니다. 이 막(莫)은 막막하다. 이 막(漠) 자와 같죠. 아득할 막 자. 물 수 변입니다. 광(廣)은 넓은 거고요, 아득히 넓은 겁니다. 어찌하여 그 나무를 무하유의 고을, 광막한 들판. 아득히 넓은 들판에 하불수지어(何不樹之於), 어찌 심어놓지 아니하고, 심어놓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방황호무위기측(彷徨乎无爲其側)하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다 나와요. 장자의 무위가 여기, 소요도 나옵니다. 소요라는 말이 여기에 비로소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하지 않고 「소요유」 했다 할 수 없겠지요. 소요호침와기하(逍遙乎寢臥其下).
무하유의 고을이 어떤 곳인가. 제가 아는 노장철학 전공자는 무하유를 아이디로 써요. 어떤 것이 있는 게 부정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다. 삶을 해치는 어떤 것도 없는 것.** 네버랜드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고을.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아득하게 넓은 들판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죠. 심겨져 있다 보다 어찌 그곳에 심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가 하고 혜시에게 힐난하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방황을 이야기하고 소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황과 **소요와 쌍이 되는 게 방황은 무위(无爲)가 붙어 있고 소요는 침와(寢臥)가 붙어 있어요. 무위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침와는 누워서 잠자는 겁니다. 아마도 낮잠일 겁니다.** 낮잠이 아닌 밤잠을 나무 밑에서 잘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밤잠을 잤다고 비난하는 경우는 없죠. 낮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 받죠.
『논어』에 보면 재여(宰予)가 낮잠 한 번 잤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공자가 후목(朽木)은 불가조야(不可雕也)요, 썩은 나무는 새길 수가 없고, 재여주침(宰予晝寢)이라고요. 『논어』에 보면 재여주침이어늘, 재여가 낮잠을 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주침(晝寢)이 다른 견해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통상 전통적으로는 재여가 낮잠을 자자, 자왈(子曰) 후목(朽木)은 불가조야(不可雕也)요. 후목(朽木), 썩어버린 나무는 불가조야(不可雕也), 새길 수가 없고, 그리고 분토지장(糞土之墻)은 분토(糞土)는 썩어버린 흙이에요. 썩어버린 흙으로 만들어진 담장은 불가오야(不可杇也)니라. 흙손질한다는 뜻입니다. 손질조차

www.artnstudy.com

할 수 없다. 재여가 낮잠 한 번 잤는데 그걸 가지고 썩어버린 나무, 썩어버린 흙담장 이래요. 가르칠 수도 없고 손질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공자가 나중에 왕충이란 학자로부터 비판 받습니다. 너무 심하게 욕했다고. 왕충이란 학자는 가끔씩 헛발질을 하는데 참 재미있게 헛발질을 해요. 공자는 사람의 불인을 너무 심하게 미워하는 것은 미혹된 것이다,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구절을 꺼내면서요.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 좋지 않다고 해놓고 자기는 자기 제자를 왜 그렇게 미워했는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대목을 낼 정도거든요.

어쨌든 토대가 농경 사회인 그런 사회에서 이런 낮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게으른 자로 비난 받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장자가 낮잠 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낮잠 자면 장자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가. 이것은 일종의 거부의 표시로 봐야지 실제로 낮잠 그대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방황이란 말, 소요란 말이 같이 나오는데 방황이라고 할 때 이 방황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주저하고 돌아서고 헤매는 겁니다. 무위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방황과 무위가 이렇게 쌍으로 있다는 것은 이때 무위의 의미가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방황은 길에 나서는 건데 어디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방황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질 않죠. 길을 나서는 사람은 어딘가 목적지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 그것은 방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황이라고 하는 건 그런 목적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다는 게 이 무위에요.
이걸 인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무위가. 그렇게 쓴 사람이 누구냐. 혜시도 그렇고 법가 사상가들도 그렇고 그렀습니다. 민(民)이라고 하는 존재가 유가에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민이라는 존재를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장 정확한 예가 이른바 농사(農)를 지어서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또 전쟁(戰)하는 데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국시댑니다. 맹자가 역시 동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맹자와 장자가 동시대다 그러는데 『맹자』에 나오는 걸 보면 격렬하죠. 포유비육(庖有肥肉)하고 푸줏간에는 살찐 고기가 가득하고 구유비마(廐有肥馬)하며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가득한데 민유기색(民有飢色)하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굶주린 기색이 역력하고, 야유아부(野有餓莩),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맹자거든요. 그런 상황의 전국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 전국시대의 상황 속에서 방황호무위(彷徨乎无爲), 무위하면서 방황한다고 했을 때 무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農戰)을 반대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전쟁하는 그런 일을 반대하는 겁니다. 무위는 반전(反戰)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방식밖에 안되냐, 소극적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장자는 글 쓰는 사람이고 글을 남겼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줄 것이냐 했을 때 장자가 글을 쓰는 사람이란 걸 인정한다면 바로 이런 메시지를 글로 남긴 거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겠죠.

www.artnstudy.com

방황은 이게 길이거든요. 옆에 있는 게 길입니다. 갈림길이에요. 오다가 일로 갈까 일로 갈까 결정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입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방황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쓰이죠, 방황은. 그런데 장자의 방황은 그 자체가 무위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의식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삶**이다. 기측(其側)이라고 할 때 그 기(其) 자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 나무 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혜시는 뭘 바랬습니까. 그 나무를 잘라 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거든요. 잘라서 먹줄에 대려니까 안 맞고 곱자에도 안 맞다. 이게 혜시의 불만이었단 말이에요. 장자는 거기다 대고 그 나무를 잘라서 뭘 하려고 할 게 아니고 그 나무 근처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나무 아래에서, 기하(其下), 소요(逍遙). 소요하면서 침와(寢臥), 누워서 낮잠 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요를 걸어 다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거닐다는 의미가 소요에도 있고. 그래서 저도 거닐다는 의미를 살려서 소요유를 거니는 즐거움 식으로 거닌다는 식으로 했지만 **여기서 소요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방황은 공간적인 규정이고 소요는 시간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방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곳으로 가야겠다는 일정한 목적의식이 없는 상태, 그런 목적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면,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참전해야 한다, 이런 목적이 없는 겁니다. **소요는 시간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소요유에 대한 풀이는요 사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방이지라는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학자가 있지요. 방이지(方以智)라는 학자가 소요를 고증을 하는데 소요를 초요(稍搖)라고 쓰나 요 소 자로 써서 물 수로 해서 소요(消遙)라고 쓰나. 그리고 또 수유(叟■)라고 하나 다 같다. 그리고 일주야공삼십수유(一晝夜共三十叟■)라 그래요. 일주야(一晝夜), 밤낮을 다 합친 하루죠. 일주야(一晝夜)가 공삼십수유(共三十叟■), 모두 합치면 삼십수유가 된다. 하루가 24시간이라고 그러는데 하루가 삼십 수유인 거에요. 삼십 수유를 한 번 계산을 해보면 48분이네요. 수유는 48분이에요. 수유하고 소요하고 초요하고 다 같으니까 이 소요는 48분 동안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 아래에서 침와(寢臥), 누워서 낮잠 자는 시간이 48분 동안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자에게 갖다 대고 48분 딱 자면 소요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선 곤란합니다. 곤란한 게 그렇게 딱 48분이라는 긴장을 가지고 보면 안 되겠죠. 다만 그 정도의 시간 거리. 나무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인데 나무에게 가까이 다가가 가지고 부비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무 곁에서 막 계속 기다리면서 그 나무에 아낌없이 달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아낌없이 달라가 아니라 **48분 정도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정도 누워 자고요, 왔다 갔다 하고. 소요가 거닐다, 산책의 의미**가 된다면 우리가 산책을 할 때 두 시간, 세 시간, 다섯 시간, 이러면 산책이 아니죠. 산자락에 올랐다 정상을 정복하고 이러면 산책이 아닙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48분쯤 돼가지고요. 물론 48분의 시간을 딱 맞추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거니까. 사물을 대하는. 그러니까 48분의 거리를 두고 사물을 대하는 겁니다.

www.artnstudy.com

그러니까 **반드시 그 상태를 차지하거나 상대의 애정을 갈구하는 식으로 밀착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 떠나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맹 같은 경우는 세상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장자는 함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48분간의 거리를 두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떠나지는 않고요.** 떠나지 않는 것 때문에 장자는 유가적으로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소요유」 편이나 이런 데서는 유가화 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허유나 이런 사람을 비판하지만 인간세 편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공자와 안연이 대화를 하는데 바로 공자의 입을 빌어서 장자가 자기 뜻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식화시켜서 노자와 장자, 그리고 공자와 맹자, 이런 식으로 대립된 구조로 이해하는 걸로는 도저히 이 텍스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방황과 소요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대하는 방식인데 다른 존재와 함께 하는 방식인데 그 함께 하는 방식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말 상대를 애틋하게 여기면서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노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버리고 떠나는 것도 아닌 거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상처를 입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겁니다. 결국 무하유지향(无何有之鄉)이라고 하는 거는 해침이 없는, 상처를 주는 어떤 존재가 없는 고을입니다. **무하유(无何有)라고 하는 거는 상처를 주지 않는 공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바로 광막지야(廣莫之野)라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광막(廣莫)이라는 거는 아득히 넓거든요, 아득히 넓어야 그게 가능하지 제한되어 있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 학철부어(涸轍鮒魚) 이야기

아득히 넓은 이 광막지야는 장자 식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옮기면 그게 강호(江湖)에요. 강과 호숩니다. 강과 호수처럼 넓은 물, 그 속에서 사는 물고기(魚). 그러니까 어상망호강호(魚相忘乎江湖)요. **이 물고기라는 것은 강과 호수에서 상망, 서로 잊어버리고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은 인상망호도술(人相忘乎道術)이라. 인간은 강호 대신에 이 도술 속에서 서로 잊고 지낸다.** 장자는 서로 잊고 지내는 상태. **보기 싫어서 잊고 지내는 게 아니라요,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런 상태가 강호라면 그 반대는 뭐냐 바로 지금 세상이죠. 지금의 세상인데 지금의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장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천학어상처어륙(泉涸魚相處於陸).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샘이 말라버리면 물고기가 뭍에 땅 위에 상처, 서로 함께 남아있다** 이거에요. 못이 말라버리니까요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남아 있으면서 상구이

www.artnstudy.com

습(相呴以濕)하며 상유이말(相濡以沫)이라. 적실 유(濡) 자죠.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샘이 말라 버렸다 이거에요. 말라 버리니까 물고기들이 땅덩어리 위에 상처, 모여 있는 겁니다. 서로 함께 살면서 서로 살려주기 위해서 상구, 서로 토해내는 겁니다. 뭘? 습기를. 또 거품을 막 뿜어내 가지고 서로 적셔준다.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거지요. 아등바등하는 이게 유가의 인의(人義)가 되겠죠.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지만 장자의 최종적인 이야기는 불여상망호강호(不如相忘於江湖)라. 강과 호수에서 상망(相忘), 서로 잊고 지내니만 불여(不如), 못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에 대한 장자의 태도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건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이 이야기가 던져주는 거는 이런 상태에서도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같은 게 이 속에 있지요. 이게 대대로 인용이 됩니다. 학철부어(涸轍鮒魚)라고 그러죠. 학철이라는 것도 역시 『장자』 본문에 나오는 건데 이 철(轍)이라고 하는 거는 수레바퀴 자국입니다. 수레가 지나가면 움푹 패죠. 수레바퀴가 쇳덩이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움푹 팬 곳에 붕어가 있는 거예요.
부어(鮒魚)가 붕어된 겁니다. 이어(鯉魚)가 잉어 됐다고 그랬죠. 수어(秀魚)가 숭어 되고요, 노어(鱸魚)가 농어 되고, 이응 첨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추어(鰌魚)는 미꾸라지 추자인데, 이렇게도(鰌) 쓰고 옆에 가을 추자를 넣기도 해요(鰍). 가을철에 추어탕이 맛있다 그러는데 추어는 그냥 추어에요. 왜 그럴까? 미꾸라지라는 우리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응 첨가 현상이 일어날 필요가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말라가는 수레바퀴 자국 속에 던져져 있는 붕어 신셉니다. 답답하죠. 장자가 지나가면서 그 학철부어를 봐요. 보면서 붕어가 물 한 바가지 주쇼, 이래요. 그러자 장자가 알았다. 근데 내가 지금 바쁘니까 지금은 그냥 가고 내가 내일 동해 용왕을 만나는데 너한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과장해요. 북해의 신을 부려서 어쩌고저쩌고 엄청나게 주마, 이래요. 그러니까 붕어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건어물 가게에서 봅시다. 당신 헛소리 관두고 날 건어물 가게에서 봅시다, 이래요. 나 조금 있으면 말라 죽는다.

비슷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비정규 상태의 근로자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환상 주죠. 나중에, 나중에. 큰 다음에 키운 다음에 파이를 나누자. 파이를 크게 한다. 일단 육성하고. 제가 그 이야기 들은 게 제가 70년대 들은 거 같아요. 기억력이 좋은지 제가 그때 남덕우 씨가 총리할 때가 언제죠. 제가 그때 그 얘기 들었거든요. 일단 키우고. 70년대 말쯤 된 거 같습니다. 일단 키우고 그 다음에 나눠주자. 우리 지금 30년이 지났거든요. 30년이 넘었죠. 80년 가면 천불 소득 되면 꿈의 소득이라고 그랬거든요. 포스터부터 다 기억이 되요. 얼마나 세뇌를 받았는지 초등학교 때 보면 80년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 백억 불에 국민 개인 소득 천 불, 이랬거든요. 지금 한 이만 달라 됩니까? 그리고 지금은 백억 불 수출은 한 기업도 그거 목표로 안 삼죠. 최근 숫자가 아니고 삼천억 불, 이러더라

www.artnstudy.com

구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데 그 동해 용왕을 불러서 준다는 물은 아직도 안 줬으니 우린 다 건어물 가게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 학철유환(涸轍猶歡)

어떻게 보면 당장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계속 딴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학철부어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래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활동하는 한철연 그 공간에서 있었던 이야긴데 교수신문에선 해마다 사자성어를 고른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자기기인(自欺欺人)이다.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였다. 원래 교수신문에서 저한테도 매회 물었어요. 올해의 사자성어 골라주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자꾸 어려운 것만 고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쯤인가에 전화가 왔을 때 나 이제 그딴 것 안합니다. 퉁명스럽게 끊어버린 뒤로는 전화가 안 오는데. 이번엔 자기기인이라고 해서 이번엔 맞다고 그랬는데 한철연에서 선배랑 같이 올해 우리가 같이 사자성어를 하면 뭐가 될까 해서 제가 꼽았던 게 학철유환(涸轍猶歡). 이건 말라버린 수레바퀴 자국에 놓인 상태에서도 곧 말라버릴 그런 수레바퀴 자국의 작은 웅덩이 속에서도 유환, 여전히 기뻐할 줄 안다. 이걸로 하기로 타협을 봤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역시 『고문진보』에 보면 「등왕각서(騰王閣序)」라고 있어요. 등왕(騰王)은 당나라 태종의 막냇동생입니다. 이원영이라고. 당나라 태종이 다 죽였죠. 자기 형제들 다 죽였습니다. 반란 일으킨데다가 형제 다 죽이고 황제가 되었는데 막냇동생 이원영은 살아남았습니다. 저 남쪽 남창이거든요. 남창에 있는 등왕각(騰王閣)이나 짓고 소요하면서 놀았습니다. 그 때문에 쟤는 황제의 자리를 노릴 얘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았죠.

이 등왕각에서 시회가 열렸는데 그게 바로 왕발(王勃)의 서문이에요. 이 왕발이 또 대단한 문장갑니다. 「등왕각서문」 하나로 천하에 이름이 알려졌는데 본래 왕발이 등왕각에 가게 된 것은 자기 아버지가 좌천되어 가지고 저 남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 따라서 가게 된 거에요. 그러니까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된 거지요. 쫓겨 가는 처지가 된 거지요. 그러다가 등왕각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구월 구일이었습니다. 삼추라고 그러니까 구월달입니다. 구월 구일이 되면 중국 사람들은 구월 구일이 가장, 아홉 구(九) 자와 오랠 구(久) 자가 발음이 같기 때문에 구구가 중첩이 되니까 중국 사람들은 저게 가장 긴 날이에요. 길어봤자 똑같지만 어쨌든 의미가 가장 긴 날입니다. 그래서 구월 구일 날 친구를 만납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으려고요. 그 친구를 만나서 국화주를 마시는데, 그 시회가 등왕각에서 열려요. 그리고 이제 당시 남창의 태수가. 남창(南昌)은 고군(故郡)이요 홍도(洪都)는 신부(新俯)라. 이게 시작되는 문장인데 「등왕각서문」이 미안하게도 아주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데 하여튼 대단히 어려우면서 대단히 아름답고 정말 명문이에요. 남창의 태수가 등왕각의 시회를 열면서 자기 사위를 출세시키려고 미리 자기 사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문장 잘 쓰는 사람

www.artnstudy.com

에게 서문을 지어놓게 하고 그 다음날 손님들을 쫙 모아요. 그 상태에서 누가 서문을 지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감히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스무 살이었던 이 왕발이 제가 짓지요 뭐 이렇게 된 거에요. 상황이 지금 안 좋잖아요. 자기 사위 출세시키려고 한 번 띄워주려고 부탁해서 다 해놓았는데 제가 짓죠, 이러니까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이놈 한 번 지어봐라 그러고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짓는지 계속 보고하라 그랬어요. 근데 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는 신부라,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게 문장을 보니까 천재라 이거에요. 딱 보고 아는 거죠.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끝까지 문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해서 탄생한 게 이 「등왕각서문」입니다.

「등왕각서문」에 나오는 얘기가 처학철이유환(處涸轍以猶歡)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학철(涸轍)의 상황에 놓여서도 여전히 기뻐할 줄 안다. 그러면서 거기 등왕각에 온 사람들을 위로를 하죠. 장안에서 쫓겨나서 멀리 떠나온 사람들의 외로운 마음을 이 말로 위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학철유환(涸轍猶歡)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는데 장자가 직접 드러내 놓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도 삶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힘이죠.

공자도 노심초사하고 석불가난이라고 그래서 자리가 따뜻할 겨를이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어디 벼슬자리 있다 그러면 혹해서 가보기도 하고 이러지만 못 얻었죠. 그러다가 고초를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즐거움으로 말하자면 공자가 악이망우(樂以忘憂)입니다. 그 즐거움으로 근심을 잊는다. 그리고 발분망식(發憤忘食)입니다. 한 번 빠져들면 밥 먹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삼월 부지육미(三月 不知肉味), 음악 한 번 들었다 하면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알지를 못해요. 석 달 동안 밥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지로지장지운이(不知老之將至云爾)라. 늙음이 오는 줄 모른다 이랬어요.

장자는 늙음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생사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고민해서 그와 관련된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치죠. 삶이라고 하는 게 다른 존재에 보면 죽음이고 어떤 존재가 죽는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어떤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삶이고 어떤 존재가 탄생한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존재에서 보면 죽음이다. 그러니까 **생사가 여일하다**. 이런 식으로 발버둥치기도 하고요. 근데 공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이 양반은 왜 그런 고민이 없을까. 늙는 줄을 모르니까. 그런 공자의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게 락(樂)입니다. 그게 『장자』에 나오는 환(歡)이죠. 즐거울 환, 기쁠 환. 이 환을 어떻게 붙잡느냐. 팔백 년 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은 글로, 또 철학을 하는 사람은 철학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즐거움이란 게 삶을 윤택하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가지고 이제 치료 인문학 이래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인문학을

www.artnstudy.com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프랑스 철학자들 중에 걸핏하면 자살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살 안하면 그런 뉴스가 절대 안 나오죠. 근데 나오잖아요. 알튀세를 비롯해서 많습니다. 알튀세는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죽였던가. 제가 지금 정보가 좀 불확실한데요. 어쨌든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때 환이나 락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물질적 풍요를 보장해주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건 아니고 정신세계의 고매한 것이다 이렇게 기만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자의 맥락 속에 그런 것을 같이 한 번 읽어보는 게 목적이고 「소요유」의 마지막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요유」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 「제물론」을 보겠습니다.

www.artnstudy.com